

# 최고 별 '박병호'

〈넥센〉

# 셋별은 '이재학'

〈NC〉



4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에서 열린 2013 한국야구 MVP, 최우수 신인선수 및 각부문별 시상식에서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2013 프로야구 각 부문별 시상식

홍민·타점·장타율·득점 4관왕  
 박병호, 네번째 2년 연속 MVP  
 이재학, 유회관 제치고 '신인상'

넥센 하어로즈의 4번 타자 박병호(27)가 역대 4번째로 프로야구 최우수선수(MVP)를 2년 연속 제패했다.

박병호는 4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13 한국야구 MVP·최우수 신인선수·각 부문

별 시상식에서 공개된 투표 결과 총 유효투표수 98표 중 물표에 가까운 84표를 얻어 타점 1위 이병규(LG·8표), 14승으로 다승 공동 1위에 오른 배영수(삼성·5표), 크리스 세튼(SK·1표)을 압도적인 표차로 눌렀다. 이로써 박병호는 선동열(현 KIA 감독·1989~1990년), 장종훈(현 한화 코치·1991~1992년), 이승엽(삼성·2001~2003년)에 이어 4번째로 MVP를 2년 연속 석권했다.

한국야구기자회 소속 회원사는 준플레이오프 1차전이 벌어진 10월 8일 서울 목동구장에서 현장 투표로 MVP, 신인왕을 뽑았다.

10월 7~8일 지역 언론사의 부재자투표를 합쳐 투표함을 봉인한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이날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정규리그에서 홈런(37개), 타점(117개), 득점(91점), 장타율(0.602) 등 4개 공격 부문 타이틀을 휩쓴 박병호는 일찌감치 MVP를 받을 것으로 점쳐졌다. 그는 플타임을 처음으로 뽐내 해 타격 3관왕을 달성하고 생애 첫 MVP를 품에 안았다.

올해에도 각종 타격 지표에서 진화한 성적을 남기고 당당히 두 번째 MVP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박병호는 MVP 상금 2000만원을 비롯해 타격 타이틀 4개에 따라붙는 상금 1200만원(각 300만원)을 합쳐 총 3200만원의 가뭄돈을 챙겼다.

중고 투수 유회관(27·두산)과 이재학(23·

NC), 순수 새내기 타자 나성범(24·NC)이 격돌한 신인왕 타이틀 경쟁에서는 이재학이 웃었다.

NC의 토종 에이스로 10승 5패 1세이브, 평균 자책점 2.88을 올린 이재학은 개표 결과 총 98표 중 77표를 얻어 10승 7패 1세이브, 평균자책점 3.53을 남긴 유회관(13표)을 밀찌감치 따돌렸다.

타율 0.243, 홈런 14개, 64타점, 도루 12개를 수확하며 NC의 돌풍을 이끈 나성범은 8표를 획득했다.

박병호는 시상식에서 "내년에도 올해보다 좋은 성적을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학은 "올해 10승을 거뒀으니 11승을 거두는 등 조금씩 올라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정규리그 부문별 수상자

부문	수상자(팀명)
MVP	박병호(넥센)
신인왕	이재학(NC)
최다 승리 투수상	배영수(삼성)
방어율 1위 투수상	찰리 쉬렉(NC)
승률 1위 투수상	류제국(LG)
최다 세이브 투수상	손승락(넥센)
최다 홀드상	한현희(넥센)
최다 탈삼진상	레다메스 리즈(LG)

### 타격 부문 수상자

부문	수상자(팀명)
최다 홈런상	최다 홈런상
최다 타점상	최다 타점상
최다 득점상	박병호(넥센)
최고 장타율상	최고 장타율상
수위 타자상	이병규(LG)
최다 안타상	손아섭(롯데)
최다 도루상	김종호(NC)
최고 출루율상	김태균(한화)

## 러시아 평가전 출전 흥명보號 5기 명단 발표

# “원톱 김신욱... 박주영은 아직”



홍명보(44)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은 박주영(아스널)의 발탁 가능성에 대해 “내년 1월 이적시장까지 지켜본 뒤에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홍 감독은 4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스위스(15일·서울 월드컵경기장), 러시아(19일·아랍에미리트 두바이) 평가전에 나설 선수 23명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홍 감독과 함께 2012 런던 올림픽에서 동메달 신화를 썼던 박주영은 소속팀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어 이번에도 대표팀에 승선하지 못했다.

홍 감독은 “박주영의 개인적인 역량은 충분히 알고 있지만 지금 그가 대표팀에 들어와서 잘했을까(서로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 “내년 1월 이적시장까지 지켜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3개월여 만에 대표팀에 재승선한 김신욱(울산 현대)에 대해서는 “어떤 선수보다 팀의 중요한 무기로 쓸 수 있는 선수”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부상으로 제외된 구자철의 빈자리는 김보경(카디프시티)과 새로 합류한 남태희(레퀴아)가 메울 것이라고 했다. /연합뉴스

◇스위스 및 러시아 평가전 출전선수 명단(23명) ▲골키퍼(GK)=정성룡(수원)·김승규(울산)·이범영(부산) ▲수비수(DF)=윤석영(툰카스터)·김진수(니가타)·김영권(광주)·홍정호(아우쿠스부르크)·황석호(히로시마)·곽태휘(알사합)·이용(울산)·신광훈(포항) ▲미드필더(MF)=손흥민(레버쿠젠)·남태희(레퀴아)·지동원·기성용(이상 선덜랜드)·고명진(서울)·한국영(쇼난)·박종우(부산)·이청용(볼턴) ▲공격수(FW)=김보경(카디프시티)·윤일록(서울)·이근호(상주)·김신욱(울산) /연합뉴스

# 이광종 감독 U-22 축구 대표팀 사령탑

## 인천 아시안게임까지 계약

2014 인천 아시안게임까지 22세 이하(U-22) 축구 대표팀을 이끌 신임 감독이 이광종(49) 전 U-20 대표팀 감독이 선임됐다.

대한축구협회는 4일 2013 아시아축구연맹(AFC) 22세 이하(U-22) 아시안컵에서 대표팀을 이끌 사령탑으로 이광종 감독을 발탁했다. 이 대회는 내년 1월 11일부터 26일까지 오만에서 열린다.

이 감독은 2000년 축구협회의 유소년 전임 지도자 과정에 1기로 들어간 이래 풀콘 유소년 선수 지도라는 외길을 걸었다.

U-15팀 감독, U-20팀 수석코치 등을 거쳤고, 2007년부터 U-17 팀을 맡아 이듬해 열린 아시아축구연맹(AFC) U-16 선수권대

회에서 준우승, 2009년 FIFA U-17 월드컵 8강을 이끌었다.

지난해에는 AFC U-19 선수권대회에서 한국에 8년 만의 우승컵을 안겼고, 2013 터키 U-20 월드컵에서도 8강이라는 빼어난 성적을 내며 지도력을 인정받았다.

유소년 선수 지도라는 외길을 걸어온 점과 이 때문에 U-20 대표급 선수들에 대한 이해가 깊다는 점이 축구협회가 이 감독을 발탁한 가장 큰 이유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축구협회는 이 감독에게 2016 리우 데자네이루 올림픽까지 사령탑을 맡기지는 않고 인천 아시안게임까지 1년 단기로 계약했다.

아시안게임까지의 대회 성적 등 성과를 지켜본 뒤 계약 연장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이 감독은 5일 오전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 2층 회의실에서 취임 공식 기자회견을 갖는다. /연합뉴스

# ‘아이스댄스’계 김연아?

## 레베카 김, 독일 도르트문트 NRW 주니어 한국 사상 첫 ‘금’

피겨스케이팅 아이스댄스의 명맥을 잇는 레베카 김(15)이 사상 첫 금메달의 낭보를 전했다.

레베카 김은 4일(한국시간) 독일 도르트문트에서 끝난 NRW트로피 아이스댄스 대회 주니어 부문에서 쇼트댄스와 프리댄스 합계 130.59점을 받아 에바 카차투리안-이고르 에레멘코(러시아·127.79점)를 제치고 우승했다.

프리댄스에서 76.91점으로 2위에 올랐지만 앞서 쇼트댄스에서 53.68점을 받아 1위로 앞서나간 덕에 선두를 지켰다.

한국 아이스댄스팀이 국제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레베카 김의 이날 금메달 이전까지는 양태화-이천군이 1999년 강원 동계아시안게임에서 동메달을 따낸 것이 역대 최고 성적이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해 2011년부터 아이스댄스 육성에 힘을 기울이던 한국 피겨는 레베카 김의 쾌거로 한층 자신감을 얻을 계기를 마련했다.

러시아에서 활동하는 한국 국적의 레베카 김은 러시아 국적의 남자 파트너인 키릴 미노프(20)와 짝을 이뤄 지난해부터 한국 대표로 각종 대회에 나서 왔다.

페어스케이팅과 아이스댄스에서는 두 명의 선수중 한 명의 국적을 선택해 대회에 나



NRW트로피 아이스댄스 대회 주니어 부문에서 한국에 첫 금메달을 안긴 레베카 김과 파트너 키릴 미노프. 사진은 2013 주니어 아이스 댄스 그랑프리 민스크 대회 모습. /FSCATE 홈페이지 제공

설 수 있다. 레베카 김-키릴 미노프는 지난 시즌부터 주니어 그랑프리에 출전, 꾸준히 실력을 길러 왔다.

지난해 첫 주니어 그랑프리에서 종합 104.48점을 받아 10위에 오른 이들은 올해 첫 주

니어 그랑프리에서는 121.50점으로 5위, 두 번째 대회에서는 120.06점으로 4위를 차지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자신들의 ISU 공인 최고기록(121.50점)을 훌쩍 넘어서 130점대를 기록하며 첫 금메달의 영광을 안았다. /연합뉴스

## 일문일답

-김신욱이 어떤 점이 발전했다고 보는지. 장점을 어떻게 팀에 녹일 것인지.

▲김신욱은 감점을 가진 선수다. 어떤 선수보다 팀의 중요한 무기로 쓸 수 있다. 이번에 부르지 않으면 해외에서 뛰는 선수들과 호흡을 맞출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다.

-박주영은 어떤 점이 부족했다.

▲박주영은 명단의 어떤 선수보다 대표 경험에 많고 팀에 들어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 선수다. 다만 대표팀에 들어와서 모든 것을 발휘하기에는 준비가 덜 됐다는 느낌을 받았다. 지금은 그가 대표팀에 들어와서 잘했을까(서로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1월 이적시장

## “박주영 준비 덜 돼... 지켜보겠다”

까지 지켜보는게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

-중앙 미드필더 조합은.

▲한 명이 공격적이면 나머지 한 명은 그라운드 전체를 커버하는 옹골 역할을 해야 한다. 고명진(서울)은 공·수에서 좋은 역할을 하고 있고 좀 더 수비적인 측면에서는 박종우(부산)가 잘해줄 것으로 생각한다. 앞으로도 K리그 선수들은 꾸준히 지켜볼 계획이다.

-국내에서 경기 치르고 해외에서 또 경기하는 것은 처음인데.

▲일정 측면에서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이를 극복하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정이

다. 100% 컨디션이라면 좋겠지만 지금은 평가하는 기간이다.

-스위스, 러시아 모두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된 강팀들인데.

▲짧은 시간에 조직적인 것을 만드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이제는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선수들이 모두 인지할 것이다. (플레이가) 좀 더 원활하게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스위스와 러시아는 조 1위로 본선에 진출한 팀들이다. 우리에게 좋은 스카프 파트너가 될 것이다. /연합뉴스